

전북 스포츠클럽 운영 '모범'

2019 스포츠클럽 성과 평가서
도내 4개 클럽 성적 '우수'

전북도가 스포츠클럽 운영에 모범이 되고 있다.

18일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최근 대한체육회가 전국 76개 스포츠클럽(지역스포츠클럽 73개·거점스포츠클럽 3개)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9 스포츠클럽 성과 평가'에서 도내 4개 클럽이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고 전했다.

스포츠클럽은 전국적으로 100여 개가 있지만 운영 2년차부터 평가 대상이다.

대한체육회는 인프라와 생활체육, 엘리트, 회원커뮤니티, 재정건전성, 협조도 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전북스포츠클럽과 군산시스포츠클럽은 AA등급을 완주스포츠클럽은 A등급을 받았다.

또 남원거점스포츠클럽은 거점스포츠클럽 가운데 가장 점수가 높은 A등급을 기록했다.

전북스포츠클럽은 모든 부분에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통해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선수반 종목육성 성취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실제 아이스하키 종목 선수반과 취미반을 운영해 생활체육과 엘리트스포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

군산스포츠클럽은 인구나 인프라 자체가 다



최근 대한체육회가 전국 76개 스포츠클럽(지역스포츠클럽 73개·거점스포츠클럽 3개)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9 스포츠클럽 성과 평가'에서 전북도내 4개 클럽이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른 도시들보다 뛰어나지는 않지만 높은 수준의 클럽 성과를 창출해 타 시도 클럽들이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운영을 잘하고 있다.

완주스포츠클럽은 자체 소유하고 있는 거점 시설을 비롯해 다양한 시설을 확보, 종목육성 확대·운영하는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또 남원거점스포츠클럽은 선수반에서 성과를 창출하는 등 선수반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테니스와 탁구, 복싱 종목의 경우 지난해

소년체전에 전북 대표로 출전했으며 테니스의 경우 단체전 동메달을 획득하기도 했다.

유인탁 사무처장은 "이번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스포츠클럽들을 비롯해 도내 대부분 클럽들이 운영을 내실있게 하고 있다"며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우수 선수를 발굴하는 선진국형 체육시스템을 구축하고 도민들에게 질 높은 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 기자

'물병·수건 공유 말고 탈의실 음식 금지'

세계프로축구선수협회, 코로나19 관련 위생수칙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세계프로축구선수협회(FIFPRO)의 권고 사항이 공개됐다.

유럽 축구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중단됐다. 이탈리아 세리에A 유벤투스는 다니엘로 루가네에 이어 블레이크 마투이디까지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고,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에선 이강인의 소속팀 발렌시아 1군 선수단의 35%가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국프로축구선수협회는 18일 FIFPRO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만든 예방수칙을 알렸다.

FIFPRO는 ▲훈련이나 경기 중 하나의 물병을 다른 선수와 함께 사용하지 말고 항상 개인 물병을 사용하며 다른 선수와 타올, 목욕 가운 등을 공유하지 말 것 ▲탈의실에서 음식을 먹지 말 것 ▲개인 물품이나 의류는 반드시 개인 가방에 보관하고 탈의실이나 공동 바구니에 두지 말 것 ▲사용한 화장지나 김스, 붕대 등은 바로 뚜껑이 있는 용기에 폐기할 것 ▲가능한 한 자주 손을 씻을 것. 비누와 물을 사용해 최소 20초 동안 손을 씻은 다음 깨끗이 헹구고 일회용 페이퍼 타올로 손을 닦을 것. 비누와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농도 60%의 에탄올 손 소독제를 사용할 것 등을 주문했다.

또 ▲공중 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손을 씻기 전과 후에 수도꼭지를 만지지 말고 일회용 페이퍼 타올을 사용하여 수도꼭지를 열고 닫을 것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또는 입을 만지지 말 것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손수건

(가능하면 일회용 손수건) 또는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릴 것 등을 강조했다.

이어 ▲훈련 중 또는 훈련 전, 후에 호흡기 증상이나 발열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팀원들과의 접촉을 피하고 의료진에게 알려 조치를 할 것 ▲선수 또는 구단 관계자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이 위험 지역이나 감염소에 다녀온 경우, 확진 판정을 받거나 위험 구역에 방문한 사람과 접촉한 경우에는 즉시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김흥기 선수협 사무총장은 "코로나19로 전 세계 축구 리그가 멈췄다"면서 "FIFPRO에서 배포한 위생 수칙을 철저히 실천해 위기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뉴시스

코로나 여파... 해외 축구대회 내년 개최

축구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다음으로 큰 국제대회인 2020년 유럽 축구선수권대회(유로2020)와 남미선수권대회(코파 아메리카)가 결국 1년 연기됐다.

당초 올해 6월 12일부터 7월 12일까지 열릴 예정이던 유로2020은 내년 6월 11일부터 7월 11일까지 열리게 됐다.

유로2020에 이어 남미 최대 축구 축제인 코파아메리카도 2021년 여름으로 미뤄졌다.

남미 대륙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뉴시스

도쿄 올림픽 개최 비관론 확산

프랑스 올림픽위원장 "5월까지 잡히지 않으면 개최 어려워"
스포츠마케팅 컨설턴트 "제때 열려도 정상적인 운영 힘들 듯"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4개월 앞으로 다가온 2020 도쿄 올림픽을 정상 개최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지만 올림픽 개최 비관론이 고조되고 있다고 CNBC가 17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앞서 IOC는 17일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위원회 회의를 연 뒤 발표한 성명에서 "2020년 도쿄 올림픽에 전념하고 있다"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때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IOC는 "현 시점에서는 어떤 추측도 비생산적이다. IOC는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 도쿄 올림픽을 계속 준비할 것을 격려했다"고 강조했다.

제32회 도쿄 올림픽은 오는 7월24일 개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드니스 마세글리아 프랑스 올림픽위원장은 오는 5월 말까지 코로나19 확산

세가 잡히지 않는다면 올림픽을 정상적으로 개최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비관론에 무게를 실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전 세계 스포츠 경기들은 사실상 울스톱된 상태다.

유럽 축구계에 이어 미 프로농구(NBA)와 미프로야구(MLB) 등 미국 주요 프로 스포츠까지 리그 일정을 중단하거나 연기한 상태다.

NBA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선수들이 나오면서 리그 일정이 무기한 연기됐다. 따라서 도쿄 올림픽 기간에 NBA 선수들은 리그 일정 관계로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NBA에서는 루디 고베르, 도노번 미첼(이상 유타 재즈), 크리스티안 우드(디트로이트 피스톤스), 케빈 듀란트(브루클린 네츠) 등 모두 7명의 선수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



도쿄올림픽 준비가 한창인 일본.

았다. 브루클린 네츠에서는 듀란트를 비롯해 4명의 선수들이 확진자로 확인됐다.

테니스 4개 메이저대회 중 하나인 프랑스 오픈은 대회 개막을 오는 5월24일에서 9월20

일로 연기했다. 유럽축구연맹(UEFA)은 6월에 개막하는 유로 2020을 1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최대 경마 대회 중 하나인 캔터키 데비도 개막을 5월24일에서 9월5일로 늦춰

다. 일본 정부는 도쿄 올림픽이 수백억 달러의 경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측한만큼 대회에 거는 기대감도 크다. 도쿄 올림픽만 바라봤던 수천개의 소규모 일본 관광업체들은 올림픽이 연기될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은행(BOJ)은 도쿄 올림픽 기간 3300만 명의 내외국인이 도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은행은 또 올림픽과 연관된 건설 투자는 10조 엔(약 115조 1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림픽이 오는 7월에 개최되더라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긴 어렵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많다.

조 파보리토 스포츠마케팅 컨설턴트는 "올림픽이 제때 열리더라도 경기 일정 변경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일부 국가들은 대회에 참여하지 않거나 일부 이벤트는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파보리토는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올림픽은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대회이다. 선수들 뿐만 아니라 많은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전주매일 캠페인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말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